SECTOR
UPDATE

2026. 3. 13.

EV/모빌리티팀

장정훈 Senior Analyst
jhooni.chang@samsung.com

조현렬 Senior Analyst
hyunryul.cho@samsung.com

김원영 Research Associate
wonyoung10.kim@samsung.com

▶ 종목 정보

LG에너지솔루션 (373220 KS, 384,000)		
목표주가	510,000원	32.8%
BUY		
삼성SDI (006400 KS, 400,000)		
목표주가	420,000원	5%
BUY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차전지 (OVERWEIGHT)

인터배터리 2026 참관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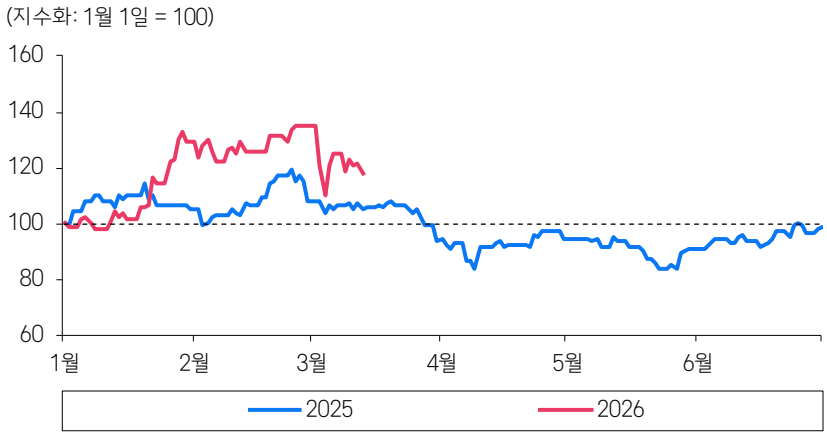
- 전시회: AI 데이터센터 관련 ESS, 피지컬AI향 전고체 배터리 기술 등 관심 집중
- 컨퍼런스: 국내 3사의 공통점은 전기차 외 AI(ESS/로봇)로의 시장 공략 확장
- 인터배터리 행사 이후 주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

인터배터리 2026 행사와 2차전지 주가

인터배터리 2026 행사와 2차전지 주가 동향: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된 인터배터리 2026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행사로 국내 2차전지업체들의 제품과 전략, 기술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리. 14회째를 맞는 인터배터리 행사는 'EV를 넘어선 모든 것으로의 확장(Expansion to Everything Beyond EV)'라는 주제에 맞게 전기차 중심에서 ESS 및 AI 등으로의 신 성장 시장에 대응하는 각 사의 전략과 제품 경쟁력을 선보이는 자리. 그간 인터배터리 행사가 열릴 때마다 2차전지 산업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주가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지난해에는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주가 부진 상황에서도 '전고체' 테마로 관련주들이 급등을 경험한 바 있었음.

이번 인터배터리 2026 행사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북미 EV향 배터리 공급망의 상반기 실적 부진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열리게 됨. 투자자들은 최근 주가 강세의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모습. 우선 1) CES 2026에서 화려하게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기회와 2)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환경하에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북미 지역향으로 ESS 배터리 대응 전략에 관심. 또한 3)최근 메탈가격 상승에 따른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와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도 눈길을 끄는 부분. 다만,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컸었던 만큼, 행사 종료 이후 4월 어닝 시즌을 앞두게 된 상황은 일부 차익 실현 등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해 보임.

인터배터리 행사와 주가



참고: 3월 12일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삼성증권

한국 배터리 셀 3사, 인터배터리 2026 전시 주요 이슈

삼성SDI,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와 북미 ESS 솔루션 강조

'피지컬 AI' 구동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 'SolidStack' 샘플 공개, 2027년 하반기 양산: 지난해에는 인터배터리 개막을 앞두고 현대차와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을 위한 MOU를 맺고 행사장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의 달이(DAL-e)와 모베드(MobED)가 전시되어 관람객의 신선을 집중시켰었음. 올해는 구체적으로 SDI 배터리가 적용된 로봇 공개는 없었으나 '피지컬 AI'에 맞춘 파우치 타입의 전고체 배터리를 전시하고 브랜드명을 '솔리드스택(SolidStackTM)'으로 명명한 점이 특징. 피지컬 AI용 전고체의 재료 특성이나 사양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그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A 샘플까지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전고체로 판단됨.

탭리스 설계로 고출력 성능을 극대화한 데이터센터용 BBU 배터리 40V3, 6월 양산: 올해 삼성SDI 부스는 EV용 관련 내용이 생략되고 상당 부분이 ESS와 관련된 제품을 강조. 부스 중앙에 AI 데이터센터용 UPS와 BBU를 배치해 강조한 점이 특징. 데이터센터 내 서버랙 안에 들어가는 BBU 배터리로 그동안 1865 원통형 제품으로 공급해 왔으나 탭리스 설계 기반으로 고출력 성능을 극대화(120W → 200W)한 2170 폼팩터 기반 40V3 제품을 선보였는데, 올 6월부터 양산 대응할 것으로 알려짐.

북미향 ESS 솔루션 NCA 기반 SBB 1.7 과 LFP 기반 SBB 2.0 올해 양산: 삼성SDI는 3중 화재 예방 시스템과 직분사 소화 시스템이 탑재되고 AI 기반 안전 소프트웨어 SBI(Samsung Battery Interlligence) 등의 SBB(Samsung Battery Box)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임. 기존 NCA 기반의 SBB 1.5는 145 Ah 셀로 시스템 용량 5.26MWh를 구현했다면, 올해 7월 출시 예정인 SBB 1.7은 152 Ah 셀로 시스템 용량을 6.14MWh급으로 키워 북미에서 양산 대응할 예정. 한편, 삼성SDI의 첫 LFP 기반 ESS인 SBB 2.0은 올 12월 북미에서 양산될 예정인데 단위 셀 용량은 273Ah이고, 시스템 용량은 5MWh급으로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

삼성SDI: 인터배터리 2026 주요 내용과 비교

주요 전시 품목	2025년 인터배터리	2026년 인터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 2027년 하반기 구체화	'피지컬AI'용 솔리드스택 공개, '27년 하반기 양산
로봇 배터리	현대차/기아와 협력, 2170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 전시	로봇 전시 없이, 파우치 타입 전고체 배터리 공개
SBB 솔루션	NCA 기반 SBB 1.5	NCA 기반 SBB 1.5와 LFP 기반 SBB 2.0 올해 양산
46파이	4개 제품 라인업 확대	전시 없음
초고출력 배터리	탭리스 구조 적용으로 출력 40% 개선, 2분기 출시 예정	탭리스 설계 기반 2170, BBU향 확대 적용
열전파 차단 기술	열전파 차단(No-Thermal Propagation, No-TP) 기술 개발 완료	NO TP 기술 SBB 핵심의 하나로 설명

자료: 삼성증권 정리

삼성SDI: '27년 하반기 양산, 전고체 배터리 '솔리드스택'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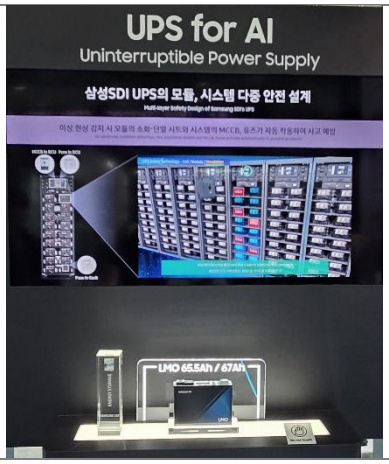
삼성SDI: 차세대 BBU향 탭리스 설계 고출력 2170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삼성SDI: 북미 ESS 양산 솔루션 SBB 1.7과 2.0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삼성SDI: 데이터센터 UPS용 LMO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LG에너지솔루션, EV에서 AI로의 에너지 확장에 집중

작년, 차세대 원통형을 강조: 배터리 셀업체의 인터배터리 전시 주제를 크게 4가지(차세대 제품, 중저가 공략, 모듈/패키징/BMS, Non-EV 시장 공략)를 나누어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차세대 원통형 제품을 크게 강조. 글로벌 완성차업체가 본격 탑재를 하기 시작하는 원년이자, 동사 또한 본격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 46시리즈 셀 라인업(4680, 4695, 46120)을 최초 공개하였고, 원통형 배터리 모듈/팩 솔루션 CAS(Cell Array Structure)를 공개. 또한 2024년에 공개했던 LFP ESS 배터리의 차세대 제품도 공개하였으며, 중저가 전기차 시장(LFP CTP및 고전압 미드니켈 파우치 셀) 공략 제품 전시.

올해, 에너지의 확장에 집중: 한편 올해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 확장에 보다 집중. 2025년 IRA 정책 변화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고성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EV 대신 ESS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으며, 동사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ESS 배터리 공장 가동 및 EV 배터리 공장의 ESS 배터리 공장 전환을 시작했기 때문. ESS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및 드론과 같은 최근 시장 개화가 시작되는 제품에 대한 배터리 기술도 작년보다 크게 확장. 이는 올해 CES에서부터 Physical AI가 본격적인 화두가 된 만큼 향후 공략 가능한 시장을 넓히겠단 의도로 풀이.

LFP ESS, 2026년부터 대폭 판매 확대 전망: 2026년 동사의 북미 ESS 배터리 판매량은 22.3GWh으로 전년 5.1GWh 대비 대폭 성장 전망. 특히 동사의 올해 북미 전체(EV+ESS) 판매량이 34.4GWh에 달할 것을 감안하면, 북미 전체 판매 중 ESS 판매 비중은 2025년 15%에서 2026년 65%로 급증 예상. 즉, 북미 배터리 사업에 있어 전기차와 우선 순위가 바뀔 원년. 최근 북미 시장에서 현지 생산 설비를 보유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발주가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2027~28년까지 생산 능력의 가파른 확장은 이어질 것.

휴머노이드 시장, 6개 고객사 이미 확보: 동사는 지난 4Q25 실적 발표를 통해 휴머노이드 배터리 사업 관련 현황을 공유. 현재 미국, 한국, 중국 전반에서 Top tier 휴머노이드업체로부터 우선 협력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6개 업체로부터 수주를 완료하여 이미 공급하거나 차세대 모델 양산을 협의 중. 제품은 고 에너지 밀도, 고출력 스펙의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 진행 중. 대표적으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Atlas에도 공급 계획 중인 것으로 추정.

국내 업체 최초 나트륨 이온 배터리 진출: 동사는 금번 행사를 통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제품을 전시. 12V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ESS용 및 차량 시동용 배터리 팩을 공개. 현재 동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전기차 고객사와 테스트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상업화 계획을 밝힌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과 궤를 같이 하는 범위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이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인터배터리 2026 주요 내용

주제	주요 내용
2025년 인터배터리	
차세대 제품	• **46시리즈 셀 라인업(4680, 4695, 46120) 최초 공개** • 나트륨이온 배터리, 및 바이폴라 배터리, 건식전극 공정 등 차세대 제품 공개 계획 •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Aptera Motors 차량 전시
중저가 공략	• LFP CTP(Cell-To-Pack) 및 고전압 미드니켈(Mid-Ni) 파우치 셀 전시
모듈/패키징/BMS	• 원통형 배터리 성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안전성 강화한 **배터리 모듈/팩 솔루션 CAS(Cell Array Structure)** 전시 •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BMTS) 신규 브랜드 'B.around' 공개
Non-EV 공략	• 전력망용 JF2 등 LFP ESS 배터리 및 소형 배터리 셀이 탑재된 로봇 공개
2026년 인터배터리	
차세대 제품	• LMR(리튬망간리치) 배터리 및 황화물계 실물 셀 최초 공개 • 리튬메탈 배터리, 바이폴라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도 공개
중저가 공략	• 고객과 테스트 진행 중인 차량 시동용 및 ESS용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전시
모듈/패키징/BMS	• 배터리 장수명 케어 솔루션 'Better.Re'와 BaaS 신사업 모델인 배터리 진단 서비스 'B-lifecare' 및 'B.once'를 공개
Non-EV 공략	• **JF2 DC LINK 5.0 전력망용 ESS**, 데이터센터 비상전원 솔루션으로 UPS(파우치형 NCM/LFP) 및 BBU(원통형 하이니켈) 솔루션 공개 • 동사의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LG전자의 홈로봇 'LG CLOiD'와 베어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로봇 'Carti100'를 전시 • 동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혈액수송용 드론, 항공-큐브 위성도 함께 소개

참고: Bold 표시는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 제품 및 기술
자료: LG에너지솔루션, 삼성증권 정리

LG에너지솔루션: 국내 최초 LFP 배터리를 탑재한 ESS 솔루션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LG에너지솔루션: 고객사와 테스트 중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SK온, 폼팩터 확장에 대한 의지 확인

작년, 폼팩터 다변화를 강조: SK온은 2025년 인터배터리를 통해 폼팩터 다변화를 크게 강조. 아직까지 동사는 '폼팩터는 파우치, 케미스트리는 하이니켈, 판매 시장은 전기차 시장'에만 한정. 즉, 폼팩터, 케미스트리 및 판매 시장 다변화가 제한적. 작년 행사를 통해 폼팩터 측면에서 각형 및 원통형 제품을 전시하여 상용화 계획을 천명. 즉, 동사의 폼팩터 다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제품이 상용화 될 경우, 케미스트리 및 판매 시장 다변화도 기대 가능.

올해, 각형 확장에 대한 의지 강화: 한편 올해 인터배터리를 통해서도 SK온은 폼팩터의 확장, 그 중에서도 각형 배터리로의 확장 의지가 보다 컸다고 판단. 파우치 통합 각형 셀과 각형 온 벤트 셀(On-Vent Cell; 레이저 인그레이빙 기술을 적용해 가스와 열 배출구를 원하는 위치에 구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유연성을 제고) 등을 주요 제품으로 전시한 게 이를 방증. 또한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국내 ESS 중앙 계약 수주를 통해 판매가 시작도리 ESS 시스템 및 파우치형 ESS LFP 배터리도 전시.

작년에 이어 차세대 패키징도 강조: 동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세대 패키징에 대한 기술을 공개. 파우치 CTP(Cell-To-Pack), 파우치 통합 각형 팩, 대면적 냉각 기술(LSC) CTP 및 CMP(Cell-Module-Pack) 등 4가지 팩 솔루션을 공개. 파우치 CTP는 2027년 양산 목표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대상으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 파우치 통합 각형 팩은 미드니켈 파우치 셀을 알루미늄 각형 케이스 안에 넣는 구조로, 파우치의 단점을 각형 패키징을 통해 보완하고 파우치 셀의 설계 유연성을 활용하겠단 목적. 이는 2028년 상업 생산 계획. 그리고 작년에 이어 액침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활용한 액침 냉각 팩 모형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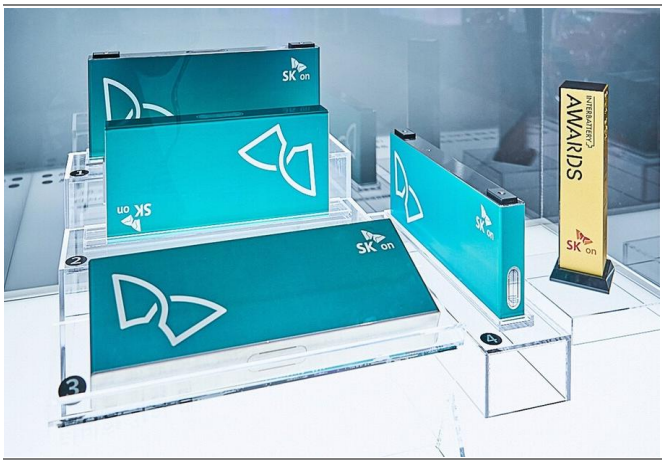
.

SK온: 인터배터리 2026 주요 내용

주제	주요 내용
2025년 인터배터리	
차세대 제품	• 기존 파우치형 외 각형 및 원통형 제품 동시 전시하여 3대 폼팩터(파우치형/각형/원통형) 모두 전시 • 장수명 LFP 배터리, 원통형 실물 모형 및 양방향/단방향 각형 배터리 공개
중저가 공략	•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최초 공개
모듈/패키징/BMS	• 배선이 필요 없는 차세대 무선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최초 공개 배터리 셀 탭에 부착된 무선 칩이 수집한 정보를 모듈의 안테나가 BMS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구조 • CTP(Cell-To-Pack) 기술이 적용된 'S-Pack+'도 전시 • SK엔무브와의 협력 개발 중인 액침냉각 기술도 전시
Non-EV 공략	
2026년 인터배터리	
차세대 제품	• **각형 온 벤트 셀(On-Vent Cell; 열 폭주 발생 시 가스를 효율적으로 배출해 화재 확산을 방지)** 공개 • 파우치형 고전압 하이니켈 배터리 셀과 46시리즈 원통형 셀도 전시 •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및 바나듐 이온 배터리 모형도 전시
중저가 공략	• ESS용 고 에너지 밀도 LFP 배터리 공개
모듈/패키징/BMS	• 파우치 CTP, 파우치 통합 각형 팩, 대면적 냉각기술(LSC) CTP 및 CMP(Cell-Module-Pack) 등 4가지 팩 솔루션 공개 • 액침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활용한 액침 냉각 팩 모형도 전시
Non-EV 공략	• 동사 배터리 탑재된 현대위아의 물류로봇(AMR) 전시 • 전기화학 임피던스분광법(EIS) 기반 예방·진단 시스템을 접목한 컨테이너형 ESS DC 블록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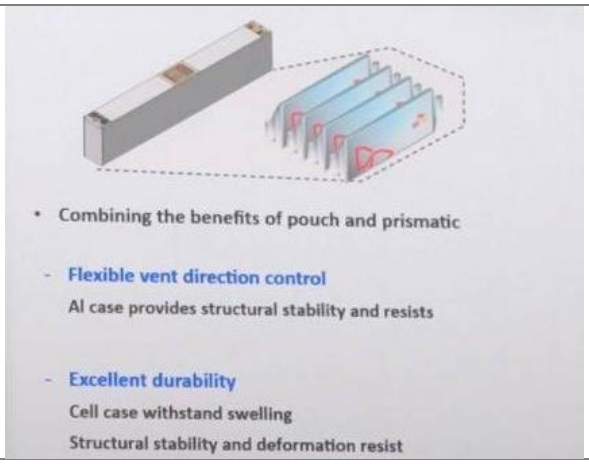
참고: Bold 표시는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 제품 및 기술
자료: SK온, 삼성증권 정리

SK온: 각형 온 벤트 셀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SK온: 파우치 통합 각형 팩(Integrated prismatic pouch)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한국 및 일본 배터리 셀업체 CTO(최고기술책임자) 발표 후기

아시아 배터리 4개사 - 공통 관심사는 Non-EV 확장, 안전, AI

금번 인터배터리 내 더 배터리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배터리 셀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및 SK온) 및 일본 배터리업체 Panasonic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각 회사별 기술 전략 방향을 공유. 4개 업체는 공통적으로 EV 시장의 단기 둔화를 인정하면서도, 각 업체별 대응 방안은 다소 상이. 하지만 EV 외 다른 시장(ESS, 휴머노이드, 드론 및 eVTOL)에 대한 대응, 열 폭주와 같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추구 및 AI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가속화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표출.

LG에너지솔루션 – '시간의 축적' 위에 '시간의 압축', IP와 AX가 핵심

LG에너지솔루션은 발표 중심 축을 기술 자산 축적과 개발 속도 가속화에 설정. 회사는 이를 각각 '시간의 축적'과 '시간의 압축'으로 정의했는데, 전자는 30년 이상 축적한 기술·특허 자산, 후자는 AI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한 R&D 가속 체계. 발표 전반의 핵심은 단순 제품 소개보다 "배터리 산업에서 원천 혁신을 만들어온 회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구조. 제품 측면에서는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LMR 배터리, LFP 배터리, ESS용 BMS,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매우 넓은 포트폴리오를 제시. 특히 하이니켈에서는 니켈 94% 양산과 95% 개발 완료, 고전압 미드니켈에선 Spray Pyrolysis와 Gas-Free 전해질, LMR 배터리에서는 압도적 특허 우위를 강조. ESS에서는 LFP+팩+BMS 통합 경쟁력, 차세대 배터리로는 나트륨이온과 60Ah급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을 제시. 전반적으로 모든 세그먼트를 공략하여 그동안 축적한 특허 및 IP를 기반으로 AI를 접목하여 R&D 가속화 추진 계획을 공유.

삼성SDI - EV 캐즘 돌파의 답은 각형·전고체·고부가 Non-EV

삼성SDI는 4개 업체 중 가장 선명하게 EV 밖의 프리미엄 시장 개화를 강조. ESS, 로보틱스, UAM을 별도 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요구 조건이 기존 EV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ESS는 장수명·고출력·안전성, 로보틱스는 고밀도·고출력·초안전성, UAM은 초경량 고에너지밀도가 핵심이라고 정리. 이에 대한 동사의 대응 축은 각형(PrismStack)과 전고체(SolidStack). 각형 셀의 난이도와 진입장벽을 매우 강하게 부각했으며, 인터배터리 수상 실적과 미국 특허 수를 근거로 국내 업체 중 각형 배터리에 대한 리더십을 피력. ESS는 LFP 각형 & 안전 박스 시스템, 로보틱스는 전고체, UAM은 리튬황/리튬메탈로 대응하는 식으로 어플리케이션별 기술 매칭을 명확하게 구분.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 양산 준비 일정까지 제시했고, 무음극 구조와 고체 전해질 기술을 리튬황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Samsung Battery Intelligence, Autonomous Lab, 슈퍼 캐퍼시터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만으로 고출력을 구현하는 ESS 시스템 등 ESS 시장에서 그동안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개발한 기술을 강조.

SK온 - 성능보다 먼저 신뢰, 3P Zero와 AI 디지털 트윈

SK온은 다른 업체들이 에너지밀도·특허·차세대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발표 출발점을 "Trust Density", 즉 소비자가 배터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설정. 이는 현재 배터리 산업이 가격과 에너지 밀도 경쟁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졌고, 안전성과 신뢰가 실질적 구매 장벽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는 해석. 이에 따라 SK온은 자사의 핵심 전략을 3P Zero(Prevent, Protect, Predict)로 구조화. Prevent에서는 4대 소재 전반의 안전 기술과 고내열 분리막, Protect에서는 고도화된 BMS, Directional Venting, 파우치 통합 각형 패키징, Predict에서는 AI 디지털 트윈 기반 설계·양산 데이터 통합을 제시했다. 특히 동사는 셀 관점에서의 절대 안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화재 가능성을 완전히 0(Zero)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전제하에 '예방-피해 제어-사전 예측' 전 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또한 데이터센터, 선박, 중장비, 휴머노이드 등 Non-EV 어플리케이션도 언급했지만, 삼성SDI처럼 구체 제품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안전 체계를 갖춘 배터리 플랫폼"을 강조한 점이 차이. 즉, SK온은 기술 스펙 경쟁보다 배터리 신뢰성과 시스템 안전성을 상품화하는 전략에 조금 더 집중.

Panasonic - 원통형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 다음 무대는 Physical AI와 BBU

파나소닉은 배터리 산업의 장기 혁신사를 설명하면서, 원통형 셀의 표준화 용이성/안전성/신기술 적용 유연성을 동사의 핵심 차별점으로 제시. 특히 EV 배터리 누적 판매량과 안정성 이력을 강조하며, 작은 셀일수록 성능과 안전성의 균형을 맞추기 쉽다는 점을 부각. 기술 방향은 금속 사용량 감소, 재활용 친화 소재, 고 에너지밀도, 급속 충전 개선으로 요약. 현재 900Wh/L 수준에서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충전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음극(Anode-free) 원통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피력. 또한 최근 산업의 중심축이 EV에서 AI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Physical AI의 24/7 운영 조건에 맞는 Well-Balanced Battery를 강조. 실제 사업 측면에서도 데이터센터용 BBU(Battery Backup Unit)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Panasonic이 Non-EV 시장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신규 어플리케이션.

CTO PT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이번 4개사 발표를 종합하면, 아시아 배터리 셀업체의 화두는 단순히 'EV 수요 회복'이 아닌 세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 가능. 첫째, 배터리 산업의 주 무대가 전기차 단일 시장에서 ESS, 데이터센터용, 로보틱스용, UAM용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둘째, 경쟁 포인트가 에너지밀도 하나에서 안전(열 폭주 방지), 수명, 열관리, 시스템화, AI 기반 개발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각 사 모두 차세대 전지에 대해 강조했지만, 실제 당장의 승부처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얼마나 더 안전하고, 싸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맞춤형으로 진화시키느냐에 있다는 점. 파나소닉과 삼성SDI는 각각 자사의 핵심 폼팩터(원통형 및 각형)을 강조하는데 집중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및 SK온은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확대 및 배터리 시스템 개선 등에 집중.

인터배터리 2026 3대 테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는 2차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 그 중에서 일반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과 당사가 눈여겨 볼 만한 이슈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연계한 '전고체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북미 AI 데이터센터와 맞물린 'ESS 솔루션 전략', 그리고 '각형 폼팩터' 확대를 3가지 테마로 뽑고 관련 기업 중심으로 이슈를 정리해 봄.

테마 1, 전고체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샘플 공개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삼성SDI가 황화물계 기반의 피지컬AI용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로 '솔리드스택'을 내걸고 파우치 타입과 각형 타입 2개의 샘플을 공개함. **LG에너지솔루션**도 황화물계 기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셀과 모듈을 보였고, 바이폴라 배터리와 소듐이온 배터리를 소개, **SK온**은 황화물계 전고체 소개와 함께, 고분자-산화물 복합계 배터리로 2028년 양산을, 리튬 메탈 배터리는 20231년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과 함께 범용 대비 현저한 밀도 개선이 기대되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

차세대 배터리 기술 대응 소재 부품 밸류체인: 셀업체의 전략과 맞물려 소재 및 장비 밸류체인들도 전고체 및 차세대 배터리 관련 전략들이 소개됨. **포스코퓨처엠**은 '팩토리얼'사와 함께 EV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실라'와 증착형 실리콘 음극재(CVD Si-C) 기술을 통해 동사의 양, 음극재와 같이 신규 전지 시스템 개발 추진. 또한 'Molten'과는 고체전해질과 리튬메탈 음극재 개발 진행하는 등 가장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임. **에코프로**는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을 시도. '에코프로 AP'가 황화수소(H_2S)를 제조하고, '에코프로 Innovation'은 이를 가지고 황화리튬(Li2S)을 합성한 후 '에코프로 BM'에서 고체전해질을 만들게 되는 구조. 전고체 양/음극재에 대한 개발도 진행해 에코프로 BM이 계면저항 감소를 위한 코팅 등으로 고체전해질과 접촉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전고체용 양극재 개발이 눈에 띔. 그리고 에코프로 Innovation은 전고체 음극 부문에서도 리튬 메탈 음극 개발을 진행 중.

한편 **LG화학**은 전고체 전지용 '고체 바인더' 제품을 2029년 개발하는 로드맵을 선보임. 차세대 배터리 대응 관련해 **이녹스**는 차세대 배터리용 안정성을 높힌 고탄성 필름 및 고강성 패드 등을 선보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점에 주목됨.

포스코퓨처엠: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협력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에코프로: 전고체 배터리 소재 대응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LG화학: 전고체용 고체바인더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이녹스: 차세대 배터리용 고탄성 필름, 고강성 패드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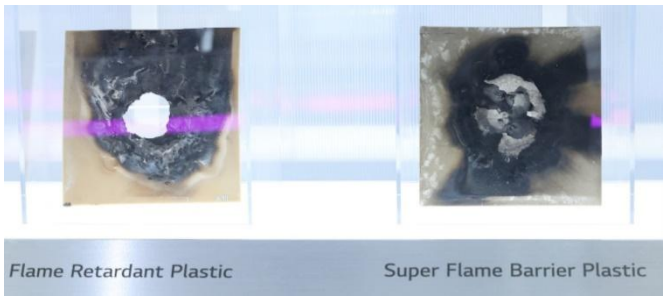
테마 2, AI 데이터센터용 ESS 솔루션

LFP 기반 ESS 확대 전략: 전력용 ESS 부문에서 국내 3사중 가장 먼저 LFP 기반 ESS를 선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인터배터리 어워즈를 수상한 JF2 DC Link 5.0과 함께 UPS용도 LFP 기반인 반면, 그동안 NCA 기반 ESS를 공급하던 삼성SDI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LFP 기반 ESS 를 본격 생산하며 UPS용은 출력 특성을 향상시킨 LMO 셀로 시장 대응하는 것이 대조적. 데이터센터 내 BBU는 구조 특성상 원통형 셀이 적용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모두 1865와 2170 포맷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삼성SDI는 탭리스 설계로 출력 특성을 대폭 개선시킨 2170 제품을 올해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 북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환경하에서 고출력 원통형의 BBU와 LFP 기반 UPS 및 전력용 ESS용 솔루션에 기반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

ESS 안전 솔루션 밸류체인: **SK**온이 SK온무브의 '액침냉각' 기술을 적용한 팩 단위 솔루션을 공개해 향후 ESS 시장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업계 최초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1]) 기반 예방 진단 시스템을 접목한 컨테이너형 ESS DC 블록을 선보임. **LG화학**은 에어로젤 기반 열 차단 소재인 '넥슐라(Nexula)'를 공개해 열 폭주 지연소재인 SFB(Super Flame Barrier)함께 이중 안전 체계 구현을 강조. **FDC**는 ESS의 설비 외함에서 가연성 가스 폭발이 생기는 경우 신속하게 개방돼 내부의 압력을 외부로 방출해 설비 손상이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인 '폭연방산구(Deflagration Panel)'를 개발해 국내 최초 양산화에 성공하고 북미로 수출중인 것으로 알려짐. 해당 제품은 인터배터리 어워즈에 선정.

[1] EIS 는 교류 신호로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분석해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로 기존 BMS 가 놓치기 쉬운 미세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LG화학: SFB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FDC: 폭연방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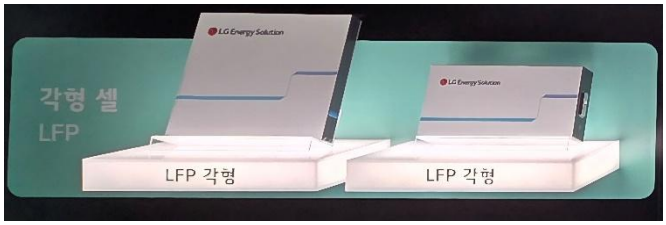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테마 3, 각형 솔루션

각형 솔루션 확대 적용: 그동안 각형은 국내 3사 중에서는 삼성SDI 위주로 진행되어왔으나 최근 타사로 확대되는 모습. 파우치 폼팩터를 중심으로 공급하던 **LG에너지솔루션**은 전력용 ESS향으로 전극 단자가 상단에 달린 탑 터미널(Top-terminal)과 측면에 달린 사이드 터미널(Side-Terminal) 2가지 형태의 각형 폼팩터의 LFP 셀을 선보임. 한편 **SK온**은 '파우치 통합 각형 셀' 개념을 선보였는데, 파우치의 설계 유연성과 각형의 구조적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미드니켈 파우치 셀로 구성하고 통합 각형 셀은 가스 배출 설계 및 탭 위치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 SK온은 해당 셀을 2028년에 상업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번 인터배터리 어워즈를 수상한 **럼플리어**는 독자 기술로 LFP 기반의 각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 KC 인증을 획득해 양산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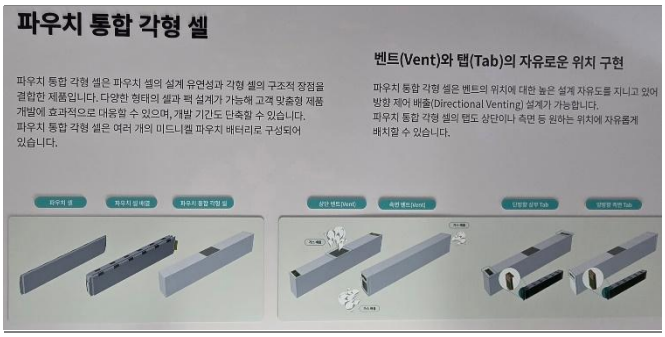
주요 완성차업체들의 각형 폼팩터 선호 환경과 더불어 대규모 전력용 ESS 시장에서도 LFP 케미스트리 선호와 함께 규격화되고 내부 압력 제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각형 배터리셀을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 이에 따라 기존 각형 캔 등 부품업체의 사업 환경은 보다 유리해 보임.

LGES: 각형 LFP 셀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SK온: 파우치 통합 각형 셀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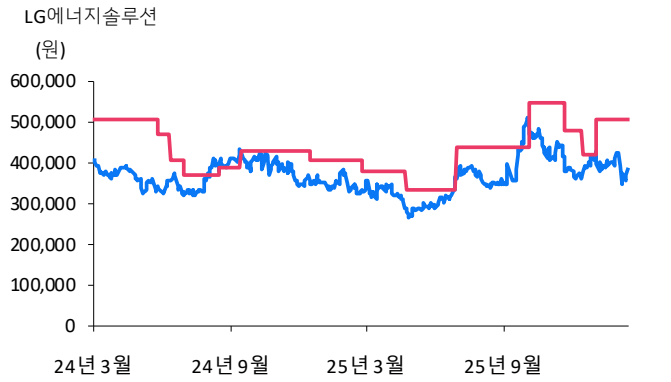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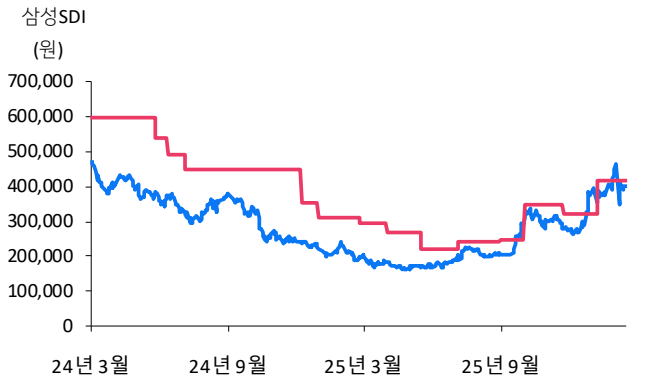
자료: 인터배터리 2026,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3월 12일 현재 삼성SDI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3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LG에너지솔루션												
일 자	2024/1/26	6/20	7/8	7/25	9/11	10/10	2025/1/10	3/21	5/19	7/25	10/31	12/18
투자의견	BUY	BUY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BUY	HOLD	HOLD
TP (원)	510000	470000	410000	370000	390000	430000	410000	380000	335000	440000	550000	480000
괴리율 (평균)	-25.18	-27.55	-15.22	-3.89	5.00	-9.14	-14.77	-12.67	-10.19	-12.74	-19.50	-21.65
괴리율 (최대or최소)	-17.75	-23.62	-8.54	11.35	0.38	-0.70	-5.98	-5.26	9.85	16.82	-11.91	-18.65
일 자	2026/1/12	1/29										
투자의견	HOLD	BUY										
TP (원)	420000	510000										
괴리율 (평균)	-3.83											
괴리율 (최대or최소)	2.62											
삼성SDI												
일 자	2024/1/30	6/20	7/8	7/30	2025/1/2	1/24	3/21	4/28	6/11	8/1	9/26	10/28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597210	538468	489517	450355	352452	313291	293710	270000	220000	240000	250000	350000
괴리율 (평균)	-32.48	-32.88	-28.53	-31.99	-33.69	-32.91	-37.37	-37.02	-18.49	-12.36	-5.25	-11.76
괴리율 (최대or최소)	-20.33	-29.27	-22.10	-15.76	-30.69	-22.81	-30.50	-32.00	-6.36	-6.25	17.20	-3.57
일 자	12/19	2026/2/3										
투자의견	BUY	BUY										
TP (원)	320000	420000										
괴리율 (평균)	-2.27											
괴리율 (최대or최소)	23.91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5.12.31 기준

매수(85.8%)·중립(14.2%)·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